

# 2018 하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

충청남도 천안시  
- 신촌초등학교



2018. 8

---

권\*영

---

직접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해봄으로써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교류하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. 또한, 약 일주일동안 멘토들과 함께 동화되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교육 봉사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이었다.

---

박\*영

---

5일 동안 수업을 진행하고 아이들과 내내 붙어있는 것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,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의 모습에 오히려 힘을 얻을 수 있었고, 스스로를 돌아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활동이었다.

---

배\*경

---

5일동안 이화봉사단 활동을 통해서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했고,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많이 배울 수 있었다. 또한 이화봉사단 동료들과도 좋은 일을 함께 하면서 친밀감도 쌓고,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좋은 시간이었다.

---

서\*현

---

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부담감이 컸다. 그러나 걱정과는 달리, 아이들이 너무나도 잘 따라주고 밝은 모습들을 보며 오히려 되려 내가 힐링이 되어 미안했다. 나 또한 아이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란다. 이화봉사단 내에서도 값진 인연을 만나 함께 서로에 대해, 아이들에 관해 얘기를 나누며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을 가진 것 같다.

---

송\*진

---

아이들이 마냥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, 팀원 모두 너무 착하고 잘 따라주어서 고맙고 보람됐다. 아이들마다 사연이 많아서 몽클한 순간도 많았지만 그만큼 애착이 갔다.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꼭 이 밝은 모습대로 행복하게 사는 성인이 되기를 응원한다.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서 좋았고 나도 너무 행복했다.

아이들을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지만 이번 이화봉사단은 나한테 의미있는 시간이었다. 1년 반동안 성당 초등부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잘 표현하지 않았던 내가 '귀엽다', '똑똑하다', '이쁘다'는 표현을 쓰며 아이들을 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, 또 내가 온전히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시간이었다. 동시에 나와 다른 연령대, 지역,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 더 이해하고 생각해볼 수 있었다. 봉사를 했던 5일이라는 시간으로 단순히 그치는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더 느낄 수 있었다.

---

장\*정

---

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값진 경험을 얻은 시간이었다. 사실 일상 속에서는 그렇게 어린 학생들과 호흡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데, 5일 동안 교육 봉사를 하며 그 연령대의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,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고자 하는지 어렵פות이 엿볼 수 있었다. 그 시간은 큰 행복감을 주었고, 진심을 다해 서로를 대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성장 또한 가능했던 것 같다.